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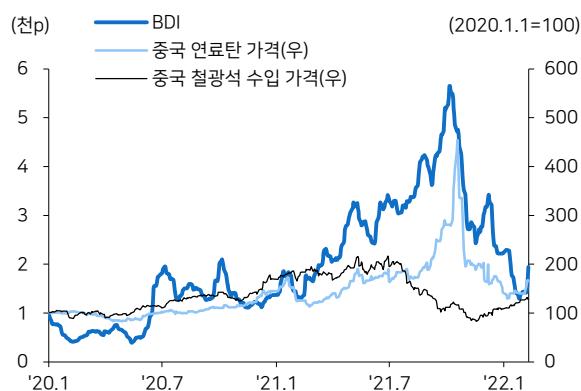
2022. 2. 14 (월)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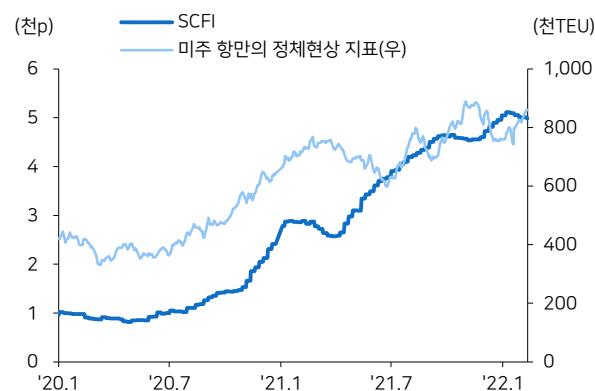
#### 건화물운임(BDI)

1,977.0p(+37.0p DoD)



#### 컨테이너운임(SC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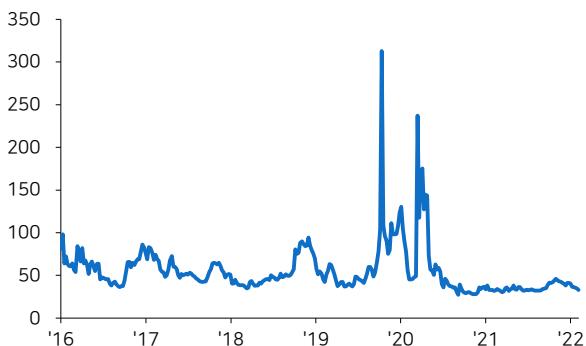
4980.9(-29.1p)



#### VLCC Spot Rate

32.5(-0.4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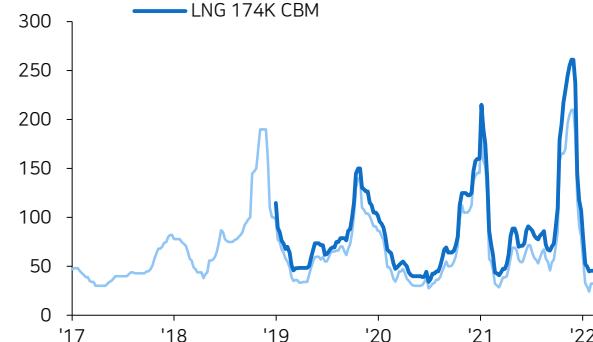
#### (WS) VLCC Earnings



#### LNG Spot 운임

32.5p(+0p WoW)  
45.5p(+0p WoW)

#### (천달러/일) LNG 160K CBM



####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6.4p(+1.3p WoW)  
200.0p(+0.0p WoW)

#### (p) 신조선가



#### 항공화물 처리량

312.1p(-8.7p DoD)  
106.8p(-2.0p DoD)

#### (p) MSCI 항공화물 index



주: 컨테이너 운임(SCFI)는 춘절이후 2주만에 업데이트됨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제주항공, 국내 LCC 최초로 화물 전용기 도입

제주항공은 화물전용기 도입을 위한 리스사와의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본격적 항공화물 운송사업을 시작한다고 보도됨. 화물 전용기 도입은 국내LCC 중 처음임. 제주항공은 2월 중순부터 B373-800BCF의 화물기 개조 작업에 돌입해 오는 6월경 개조작업을 완료할 계획임. (뉴시스)

### 택배기사 처우 좋아졌는데…끝나지 않는 택배파업

CJ대한통운 파업이 설 연휴를 넘겼지만 택배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됨.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 수가 전체의 7%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지난 1월 국토교통부의 조사에서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를 양호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으나, 노조 측은 택배요금 인상분 배분에 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는 상황으로 보도됨. 비노조 택배연합회 측은 파업장기화로 거래처 30% 가량 감소했다며 노조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음. (코리아수피ング가제트)

### Pan Ocean and Cofco join flurry of period chartering as dry bulk ends resurgent week

팬오션과 Cofco가 춘절이후 벌크선 운임 상승세에 용선계약에 성공했다고 보도됨. 지난주(11일) 장기용선 6개, Spot 계약 11개가 체결됐다고 보도됨. 장기계약 중 4건은 1년 이상으로 보도됨. 팬오션은 81,800DWT급 선박을 25,000달러/일에 용선함. (Tradewinds)

### Russia ends 'blockade' of Ukraine while US issues invasion warnings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봉쇄를 해제했지만 미국정부는 여전히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됨. 우크라이나정부는 흑해, 아조프 해 운항을 허가했는데, 이미 교역량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됨. VesselsValue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발 벌크선 수출량이 2월 전월대비 44% 감소했다고 보도됨. 원유수출량은 2월 전월대비 45% 감소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 이것이 탱커 시장의 종말일까?

Concordia Maritime에 따르면, 정유운반선 시황이 너무 좋지 않지만 원유, 정유, 식물성기름, 대체연료 등 수송 수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도됨. 현재 시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산유량과 수출물량이 늘지 않아 물동량 자체가 적은 것임. 탱커의 운항거리가 짧아졌고, 해체량의 감소, 연료가격의 상승도 요인으로 꼽힘. 선사들은 추가 비용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는 4분기에는 약간의 회복세가 있을 것으로 보도됨. (선박뉴스)

### US LNG exporters hope optimism tops obstacles

미국 LNG 수출업체들이 유럽, 아시아 LNG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기대 중이지만, 생산능력의 수요 뒷받침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됨. 미국 EIA는 2022년말 기준 수출능력을 13.9Bcf/일로 예측함. 현재 투자 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도 다수 있다고 보도됨. 그러나 LNG수출설비의 막대한 설치비용, 유럽의 LNG 수용능력 부족이 문제로 언급됨. (Upstream)